

# “환자가 중심이자 주인” 후마니타스 암병원의 포부

양여진 기자 clcl@khu.ac.kr

“환자가 주인인 암병원을 만들고 싶다” 오는 10월 개원 예정인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 암병원(후마 암병원) 준비단장으로 임명된 경희의료원 정상설(유방외과) 교수의 말이다. 정상설 교수는 암병원 개원 후 암병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대학교의 건립 이념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의학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그는 평소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가치 중 하나가 ‘환자 존중’이라고 밝히며 “치료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등 인간적인 삶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마 암병원은 국내 암환자에게 환자별 맞춤 정밀의학과 암 면역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후마 암병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 3개 분야 통합 치료 시스템을 실시한다. 암 환자의 약 40% 정도는 구강 합병증을 앓는다. 정 단장은 “치과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 환자에게 더욱 편리하다”고 통합 치료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했다. 덧붙여 “암 환자는



면역력에 따라 예후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암 병원 안에 한의학 면역센터를 구성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면역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학·한방·치과병원 모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가능한 협진시스템이다.

후마 암병원은 개원 후 ‘외래진료·단기입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환

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치의학·한의학 다학제 진료팀과 암 전문 코디네이터팀도 준비됐다. 환자가 처음 방문하면 진료 및 치료계획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장소 이동 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암병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연구기관인 영국 ‘도열마스덴’ 의료진과 화상협진 및 공동연구도 실

시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암 임상 공동 연구는 암 면역 치료와 면역제제 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화상협진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외래진료와 연구에 중점을 두면 재정적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단장은 “환자를 수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다보면 초기에는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최선의 가치를 추구하다보면 결국엔 그 진심을 알고 많은 환자들이 찾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무료로 가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에 본점을 둔 가발 회사가 동참하겠다고 나서서 가능한 것”이라며 “좋은 의도를 추구하다보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수익도 자연히 따를 것이라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경희의료원의 부족한 연구 실적을 들어 후마 암병원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

단장은 “연구가 취약하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 수용해야한다”면서도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넥신과 협업해 젊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다보면 장기적으로 연구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의 말대로 후마 암병원은 맞춤형 항암치료와 암 면역제제 개발을 위해 바이오 기업 ‘제넥신’과 협업할 계획이다. 협업을 통해 정밀의학연구소를 개설하면 유전자 검사가 용이해져 환자 맞춤형 치료도 지원할 수 있다. 제넥신과의 업무협약은 정밀의학연구소 개설에 그치지 않고 암 임상연구와 의약품 연구개발, 면역항암제치료 개발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정 단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암을 넘어 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경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우리학교 및 경희사이버대, 외부전문가와 연계한 무상가발 제공·뷰티클래스, 영화·미술·음악치료 등 총 15종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간적인 삶도 도울 계획이다.

## 색다른 수강신청제도 개선안, “모든 학생이 듣고 싶은 강의 다 들어야 한다”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해 무산됐던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이 다시 언급됐다. 2017년 2월,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는 수강신청 방법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강의 수를 늘리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강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계획을 발표했으며 강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 ‘책임시수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선안은 2019학년도 1학기 후마니타스칼리지 제도와약을 계기로 개설될 ‘수강신청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별 강좌개설 및 강의 계획서 입력은 현재와 동일하다. 그러나 수강신청 기간에 과목당 전체 수강인원 및 학년별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동시에 과목별 적정 수강인원을 표시한다. 이후 실시간으로 과목별 현재 수강신청 인원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기존의 수강신청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조합해 세 가지 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표를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구성할 수 있고 각각의 시간표에 같은 수업을 반복해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수강신청이 종료되면 과목별 강좌 수와 강의실이 조정된다. 적정인원보다 학생 수가 초과되더라도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 한도 이내인 경우 1개 강좌로 개설한다. 예를 들어 강의 적정인원 80명, 강의실 수용인원 100명, 수강신청인원이 80~100명이면 1개 강좌로 개설된다.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대형 강의 1개 또는 분반되어 개설된다. 예를 들어 적정인원 80명, 강의실 수용인원 100명, 수강신청인원이 101~200명인 경우 기존보다 수용인원이 많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복수의 강의를 개설한다.

그러나 분반된 강좌의 새로운 강의 시간에 배정된 학생은 다른 과목과 시간이 겹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가 발생하면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 다른 강좌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반대로 수강신청 인원이 기존보다 적으면 지급처럼 폐강 기준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된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현재와 같이 개강 후 일주일이다. 수강신청 정정은 수강 인원으로 인한 분반이 결정됐을 때 가능하다. 또한 수강신청 결과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조합한 세 가지 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강신청이 시간표의 세 가지 안중 하나라도 일치할 때는 정정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해 분반이 생기고 또 다른 학생들도 시간표를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수강신청 개선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제도 변경에 따른 ‘책임시수제도’가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책임시수제도’란 교수가 한 학기에 15시수에 맞춰 강의를 개설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강의 시간에만 제한이 있고 그 외에는 별

다른 제재가 없어 대부분 교수 중심 강의가 개설된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조영욱(의예과) 위원은 “단약 위의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이 채택된다면 학생중심의 수강신청이 진행된다”며 “이 때문에 교수별로 책임시수에 맞춰 강좌를 개설하더라도 책임시수가 초과 또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는 이번 수강신청 개선안에 ‘책임시수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일단 강의 계획서 입력은 15시수에 맞춰 진행하되, 강의 개설을 기피할 경우는 급여를 환수한다. 개설 확정 후, 개설 강좌가 15시수를 초과할 때는 시간감사 기준으로 초과 강사료를 지급한다. 반면 개설 강좌가 부족할 때는 두 가지 안이 존재한다. 1안의 경우 급여환수는 1년 유예하되 2년 연속 부족 시 2년차의 1년간 시수 부족분 급여를 환수하는 것이다. 2안의 경우 급여 환수는 없으나 교육영역 점수에만 반영 하는

것이다. 교육영역 점수는 교수 별 실제 개설강좌 전체 시수를 반영하여 업적평가를 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이처럼 수강신청 개선안에 맞춰 ‘책임시수제도’도 개선된다면 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한 강의를 늘려 학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의가 우수한 교육 중심 교원과 연구력이 높은 연구 중심 교원으로의 자연스러운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교수 중에서 연구실적이 부족한 경우 교육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수강신청개선안이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려면, 수강신청제도 개선의 실무부서인 교무처 학사지원과와 정보지원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이 실무부서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면, 학사지원과는 개선된 수강신청제도를 참고하여 책임시수제도역시 개선해야 한다.

### 경희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 이용 안내

#### 개인상담

상담심리전문가와 1:1 면담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깊이 있게 자기를 이해하여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 이용방법

신청  
(직접 방문 or 전화신청)

접수면접

심리검사

상담진행

#### 심리검사

개인의 성격, 정서, 심리적 적응상태, 적성, 흥미 등을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사로 평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용방법

신청  
(직접 방문 or 전화신청)

심리검사  
(성격 및 기질, 적응 관련 검사, 진로 및 적성, 학습 검사 등)  
\* 검사 종류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음.

해석상담

✓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실시되는 상담 및 심리검사는 경희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모든 상담내용은 [상담자 윤리강령]의 비밀보호 원칙을 따릅니다.

· 위치: 학생회관 1층 103호 · 전화: 02) 961-0204, 0207

경희대학교 여대혁신관 학생지원센터 심리상담연구소

### 2018 경희인 마음 건강 캠페인

일시 2018년 9월 17일~18일

장소 청운관 앞 마당 부스

AM 10

PM 1

PM 4

#### Aroma Therapy '나만의 향초 만들기'

새 학기 중후반 탈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나만의 향초 만들기’

향 선택 ➡ 색 선택 ➡ 향초 만들기 ➡ 굳히기 ➡ 나만의 향초 완성!

\* 선착순 일 50명 한정

소요시간 20분 내외    운영시간 9월 17일~18일 (오전 10시~오후 1시)

#### 관심으로 지키는 소중한 생명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존중 서약에 동참해 주세요.

\*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소요시간 1분 내외    운영시간 9월 17일~18일 (오전 10시~오후 4시)

#### 마음건강 SMART 검진

SMART기기를 활용한 검진 및 상담지원 (스트레스, 우울, 자살경향성)

대상자 학생, 교직원    진행 동대문구 보건소 · 동대문구청신청건강복지센터

소요시간 5~10분 내외    운영시간 9월 17일~18일 (오후 1시~오후 4시)

경희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

### 2018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기간 2018.09.12(수) ~ 2018.10.14(일)

대상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학부 / 대학원)

방법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http://web.khu.ac.kr/~happyou)에 탑재된 5개 영역별 영상 시청 후 폭력 예방 퀴즈 답안 작성하여 제출 (\* 10문제 모두 맞은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100명에게 경품 지급)

내용

1. 성폭력  
성폭력구분  
유형별  
서로 좋은 방법  
(10분 10초)

2. 성희롱  
관련법 제정배경  
(10분 10초)

3. 성매매  
성매매, 사형에서  
다행으로  
선택하기  
(10분 10초)

4. 디지털성폭력  
‘잘 받았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10분 10초)

5. 동성애  
성폭력 피해자,  
지급에서  
선택하기  
(10분 10초)

결과발표 2018.10.16(화)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공지)

문의 02) 961-0208 / happyyou@khu.ac.kr

10문제 모두 맞은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1등 보조배터리 9000mAh (5명)

2등 USB 16G (10명)

3등 데스크 텀블러 (10명)

4등 트라이탄 보틀 (10명)

5등 스타벅스 카드 1만원권 (30명)

6등 스타벅스 카드 5천원권 (35명)

\* 상품 품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캠퍼스 성평등상담실